산업통상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12.9.(화) 11:00 < 12.10.(수) 조간 배포 2025. 12. 9.(화)

석유화학 분야 통상파고, 민관이 함께 대응

-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석유화학 업계 통상현안 간담회 개최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12월 9일(화) 14:00, 한국화학산업협회 6층 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등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여 본부장은 12월 1~3일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 및 의회와 철강·배터리·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등 핵심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한 바 있다. 이번 간담회는 EU 집행위원회 및 의회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,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감소에 더해 주요 수출대상국의 반덤핑·상계관세, 강화되는 인증·환경 기준 등 통상 압력에 직면한 우리 석유화학 업계의 통상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특히, 석유화학 구조개편 과정에서 통상정책이 업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.

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▲석화 수입규제 조사 과정에서 양자협의, 서한 발송, 공청회 참석 등 민관 합동 대응체계 강화, ▲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(NTE Report)를 활용해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을 발굴·분석하고,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대국에 개선을 강력 요구, ▲방글라데시·파키스탄 등 신흥국과의 FTA 추진을 통해 우리 업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품목별 관세 철폐 강력 요청 등 업계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.

여 본부장은 “석유화학 업계는 내부적으로는 사업재편이 진행되고, 외부적으로는 통상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”이라며 “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 개선과 시장 다변화, 미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	책임자	과 장	이원희 (044-203-5940)
		담당자	사무관	오혜원 (044-203-5942)
			사무관	전현지 (044-203-5949)
	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	책임자	팀 장	김건혁 (044-203-4930)
			사무관	하원석 (044-203-493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통상 현안 관련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 개요**

□ 회의 개요

○ **(일시)** '25.12.9(화) 14:00~15:30

○ **(장소)** 서울 한국화학산업협회 회의실(6F)

○ **(참석자)** 정부 **본부장**, 다자통상법무관, 통상법무기획과장, 화학산업팀장, 국표원 기술규제정책과장

업계 주요 석화사(한화, 롯데 등),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 등

기관 대한상의, 무역협회, 코트라 등

○ **(논의내용)** 석화 수입규제, 환경규제 강화, 기술장벽 등 통상현안, 대외 수출여건 관련 업계 애로 청취 및 의견 수렴

□ 세부 일정(안) ※ 모두 발언까지 공개

시 간	세부 일정	비 고
14:00-14:05 (5')	사진 촬영	참석자 전원
14:05-14:10 (5')	모두 발언	**본부장**
14:10-15:25 (75')	업계 대응 현황 및 건의사항 논의	참석자 전원
15:25-15:30 (5')	마무리 발언	**본부장**